KIA 오선우 "매 순간 마지막 기회…올해 90타점 목표"

마무리캠프부터 수비·체력 강화 등 집중 훈련
간결한 타격폼 등 변화…1루 붙박이 주전 예고

"올 시즌은 90타점을 목표로 달리겠습니다."

KIA타이거즈 내야수 오선우가 2026시즌을 앞두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2019년 KIA에 입단한 오선우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다. 프로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그가 출전한 1군 경기는 단 131경기. 사실상 2군 전력이었다. 대우 또한 최저 연봉 수준을 전전했다. 시즌마다 잠깐 주목을 받긴 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매해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던 그는 진지하게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 시즌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개막 때까지만 하더라도 2군 전력이었다. 하지만 팀 내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기회를 얻었다. 여기서 오선우는 예년과는 다름을 증명했다. 성적은 124경기 437타수 116안타 18홈런 56타점 타율 0.265 OPS(출루율+장타율) 0.755. 데뷔 7년 차 만에 빛을 발하며 커리어하이를 작성했다.

그는 주축 선수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타선에서 끊임없이 불을 지폈다. 결국 후반기 부상자 복귀 후에도 주전으로 출전할 만큼 입지를 굳건히 했다.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수비에서도 큰 힘이 됐다. 팀은 비록 8위로 시즌을 마감했으나 오선우라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 것.

그의 활약은 올해 연봉협상에도 적용됐다. 지난해 3400만원에서 8600만원이나 오른 1억2000만원으로 재계약했다. 인상률이 무려 252.9%. 팀 내 연봉 재계약 대상자 가운데 야수 최고 인상률을 달성했다. 프로데뷔 후 첫 억대 연봉 달성이기도 하다.

29살에 꽃을 피운 오선우는 올해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최근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난 오선우는 "비시즌 서울에서 운동하고 최근 다시 광주로 와서 훈련하고 있다"면서 "마무리캠프부터 몸을 잘 만들어가고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마무리캠프에서 수비를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지난 시즌 아쉬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오선우는 "마무리캠프 만족도는 100%다. 수비가 많이 좋아진 걸 느꼈다. 많이 굴렀고 흙이랑 씨름을 한 수준이라 잘 지워지지도 않았다"면서 "시즌 때는 경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비 훈련을 잘 못 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타격 등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정리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깐 매년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역시 같은 마음으로 갔다"고 언급했다.

KIA는 지난 시즌 나성범, 김선빈, 김도영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있었다. 오선우는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이들의 빈자리를 잘 메웠다.

그는 지난 시즌을 돌아보며 "재밌었고 더 잘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자존감도 쌓였기에 올해는 더욱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타격폼 변화와 체력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오선우는 "타격폼을 더 간결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진을 많이 먹어서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면서도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타격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삼진을 안 당하려고만 했으면 도리어 시간을 낭비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지난해 후반기에 너무 지쳤던 경험이 있었기에 어떻게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고민 중이다"면서 "체중을 증가하는 데도 힘을 썼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하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는 팀에게 필요한 야구를 펼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날 계획이다.

오선우는 "(최)형우 선배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게 있다. 팀이 필요한 특정 상황에 맞는 야구들.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부족한 수비와 타격, 멘탈적인 부분 등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여러 선수가 나가면서 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온 셈이다. 이번 기회를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첨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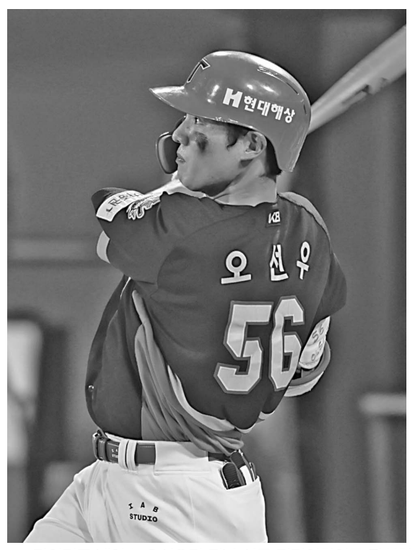
오선우는 지난 시즌 주로 1루수 비를 소화했다. 올 시즌에는 주전 1루수 자리를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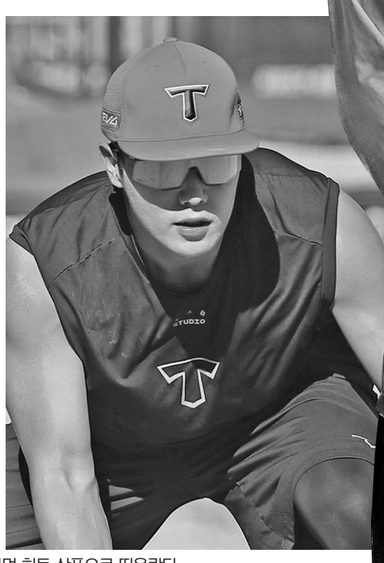
그는 "지난 시즌은 운도 많이 따랐다. 그때 당시는 '틈이 보이면 바로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준비했다"면서 "올해는 오히려 틈을 아예 안 주려고 한다.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올해는 타점을 뽑아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데뷔 후 처음으로 타격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

오선우는 "처음으로 수치를 목표로 삼았다. 올해는 80~90타점을 뽑아내고 싶다"면서 "타점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안타와 홈런이 많을 거다. 출루율 또한 따라올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타이거즈 내야수 오선우가 지난 시즌 커리어하이를 작성하며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열악한 여건 딛고 일어난 선수단 빛나길"

전갑수 시체육회장, 아이스하키 선수단 격려
동계체전서 8강 목표…"지속적 관심과 지원"

광주시체육회가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격려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최근 사전경기로 개최된 빙상 종목 격려에 이어 동계체전을 앞두고 광주실내빙상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아이스하키 광주 선수단을 만나 선전을 기원하고 응원했다.

현재 광주에는 아이스하키협회가 존재하지 않아 선수단 운영 및 지원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더욱이 아이스하키 종목은 경기장과 선수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광주는 다소 약소 시도로 평가받아 왔으나 매년 초등부 선수단이 꾸준히 전국대회에 참가하며 도전하고 있다.

광주의 아이스하키 종목 역대 최고 성적은 8강으로, 선수단은 올해도 최고 성적 달성을 목표로 훈련에 전념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중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 선수 여러분이 광주체육의 자랑"이라며 "결과보다 과정이 더 값진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시체육회도 선수들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광주실내빙상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아이스하키 광주 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LPGA 투어 '왕중왕전'으로 2026 시즌 개막

루키 황유민 데뷔전… 김아림은 타이틀 방어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이번 주 '왕중왕전'으로 2026시즌 막을 올린다.

2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 컨트리클럽(파72·6624야드)에서 2026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210만달러)가 열린다.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지난 2년간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다.

한국 선수로는 2019년 지은희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지난해엔 김아림이 우승을 차지해 올해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올해 대회엔 디펜딩 챔피언 김아림을 필두로 총 39명이 출전해 2026시즌 첫 트로피를 놓고 다툰다.

한국 선수는 김아림 외에 유해란, 양희영, 임진희, 이소미, 황유민이 참가한다.

특히 '돌격대장' 황유민은 LPGA 투어 신인으로 첫 대회에 나선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며 미국 무대 진출을 준비하던 황유민은 지난해 10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열린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퀄리파잉(Q) 시리즈를 거치지 않고 LPGA 투어에 직행했다.

황유민

김아림

여타 신인이라면 '최근 2년 우승자'만 나설 수 있는 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르기 쉽지 않으나 황유민은 우승한 덕에 LPGA 투어에 입성과 동시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

이번 대회엔 한국 선수들 외에 톱 랭커들도 다수 출전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한다.

세계랭킹 1위 지노 티띠꾼(태국)과 2위 넬리 코르다(미국), 4위 야마시타 미유(일본), 5위 찰리 헐(잉글랜드), 6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 LPGA 투어에서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포함해 3승을 거두고 상금왕과 평균 타수, 올해의 선수상을 휩쓴 티띠꾼의 기세가 새해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LPGA 투어에서 통산 15승을 거뒀으나 지난해에는 '무승'에 그치며 티띠꾼에게 세계 1위를 내준 코르다가 부활의 신호탄을 쏠지도 주목된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2026시즌 LPGA 투어에서는 5개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31개의 정규 대회가 펼쳐지며, 미국과 유럽의 대항전인 솔하임컵, 이벤트 대회인 그랜트 손턴 인비테이셔널을 포함하면 총 33개의 대회가 열린다.

총상금은 1억3200만달러(약 1915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주천희, 탁구 선수권 단식 우승

"AG 전 종목서 메달 목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에 나간다면 출전하는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세계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 여자탁구 대들보 주천희(24·삼성생명)는 27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제79회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른 뒤 국가대표로서 이루고 싶은 꿈을 당차게 밝혔다.

주천희가 종합선수권 단식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2020년 귀화한 주천희는 지난 2023년 한국프로탁구리그에서 24승(6패)으로 다승왕을 차지하며 소속팀 삼성생명의 우승에 견인차 구실을 했다.

그러나 국제탁구연맹(ITTF)의 '귀화 후 경과 규정'에 발목을 잡혀 2024년 파리 올림픽과 작년 도하 세계선수권에는 뛸 자격이 없었다.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까지는 귀화 경과 규정에 걸려 나설 수 없지만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부터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수 있다.

특히 세계랭킹 16위인 주천희는 이미 작년 연말 세계 50위 안에 들어 대한체육회 인정 국가대표(10명)로 자동 선발됐다.

최종 5명을 뽑는 아시안게임 파견 선발전을 통과해야 하지만, 지금 실력으로는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탄탄한 기본기와 코너에 몰려도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포커페이스로 탁구 팬들로부터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4년 대통령기, 작년 종별선수권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단식 정상에 오른 그는 "큰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었는데 뜻을 이뤄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목표와 관련해 "세계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